



2007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 대단원의 막 내려..

한 국낙농육우협회(이승호 회장)는 11월 경기, 강원, 전북에 이어 12월에는 3일(월) 충남(아산)을 시작으로 4일(화) 충북(청원), 5일(수) 전남(나주), 6일(목) 경남Ⅱ(양산), 7일(금) 경남Ⅰ(합안), 11일(화) 경주에서 경북지역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2주간의 전국 9개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된 전체 행사일정을 마쳤다.

12월 3일(월) 아산도고글로리 콘도에서 진행된 충남지역 낙농인 대토론회에는 200여명의 충남 낙농육우인들이 운집하여 준비된 자료와 식사가 동이 날 정도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서정의 아시아농민연합의장(전한농연회장)은 초청강연에서 농민단체장



충남지역 토론회 행사 전경



左 : 충남 낙농육우인을 대표하여 박용면 아산시낙농연합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右 : 충북지역 토론회 행사장 전경

시절에 경험했던 농정현안에 대한 소회와 함께 낙농가의 단결과 농민들간의 연대를 통해 잘못된 농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뭉치면 반드시 길이 있고 지역 농민지도자인 낙농육우인이 그 중심에서 주길 당부하였다. 낙농현안 현안토론에서는 전국 단위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낙농후계자 및 신규농가 육성, 실질적인 분뇨지원대책 마련, 부르셀라 보상책 마련 등의 건의가 이어졌다.

12월 4일(화) 충북낙협 회의실에서 개최된 충북지역 낙농인 대토론회에서는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협회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현안해결을 위한 충북 낙농육우인들의 결의와 해안이 모아졌다. 초청강연자로 나선 박종수 교수는 개방화시대 낙농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낙농정책 비전과 자금목표 설정을 통한 시장개입이 우선이며, 또한 낙농자 조금 거출규모 확대 및 유업체 참여를 통해 다양한 소비홍보 기법을 도입하여 낙농가 스스로 소비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낙농현안 현안토론에서는 전국단위 쿼터제 조속 도

입 및 집유주체별 쿼터가격 상이 해소방안 마련, 축분공동처리장 등 실질적인 분뇨 자원화대책 마련, 조사료 수급대책 마련, 낙농후계자 육성 등 정책건의가 이어졌으며, 특히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협회비 인상을 통한 협회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 되었다.

12월 5일(수) 전남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전남지역 낙농인 대토론회에서는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반정도 지체된 오후 3시에 행사가 끝날 정도로 토론회 열기가 뜨거웠다. 이현목 한농연 정책연구소장은 초청강연을 통해 정책이란 파워게임의 산물이기 때문에 농민의 단합된 힘과 목적의식에 따라 변화해 갈 수 있으며, 농민들과 함께하지 않는 농정은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건의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단합된 목소리로 제시하여 잘못된 농정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낙농현안 현안토론에서는 전국 단위 제도개편 및 진흥회 농가 기준원유량 조정 추진동향, 사료비 인상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및 원유가 인상 검토, 시설현대화 정부지원, 육우 군납 추진



左 : 이현목 한농연 정책연구소장은 초청강연을 통해 농정개선을 위해서는 농가부터 단합을 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右 : 경남 II지역 토론회 행사 전경

동향 등 정책 동향에 질의 및 건의가 이어졌다.

12월 6일(목) 양산시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남 II 지역 낙농인 대토론회에서는 양산, 김해, 울산지역 낙농육우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조석진 영남대 교수는 초청강연에서 UR협상 이후 소비패턴은 치즈등 유제품 위주로 변화해 가고 있으나 증가된 소비량 만큼 수입유제품이 잠식하고 있으며, 한미 FTA 협상결과 관세철폐 및 TRQ 물량 설정 과다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고 특히 향후 국내산 원유의 소비확대 판로인 치즈시장이 개방되어 향후 미국산 치즈수입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에 계획생산제, 낙농-유업체간 대등한 거래교섭 확보 등을 비롯한 낙농제도 개혁과 함께 음용유 및 국산유제품의 소비확대, 국산 유제품의 품질향상, 낙농경영 가치 실현 등 국제화에 발맞춰 낙농산업의 체질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낙농현안 현안토론에서는 전국단위 제도개편 추진동향, 농협중앙회 쇠고기 수입 저지, 면세유 기종확대, 지역별 우수소비홍보 예산증액, 송아지 생산안정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건의가 이어졌다.

12월 7일(금) 함안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남 I 지역 낙농인 대토론회에서는 경남지역 시군 및 읍면단위 낙우회장과 경남 도청 및 시군청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뤘다. 박홍수 전농림부장관은 초청강연에서 장관 시절 모든 농정은 현장에서 나와야 한다는 신념하에 조직혁신 및 농정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쉬움이 많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농가 수준만큼 정책도 바뀌므로 협회를 중심으로 의견결집이 필요하며 협회는 농가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할 때만이 정책책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향간에 FTA대책에 대한 농가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먼저 '할 수 있다'는 현장농민의 마음가짐이 우선이라며 농가권익을 찾기 위해서는 협회에 힘을 실어 주라는 당부도 아끼지 않았다. 낙농현안 현안토론에서는 낙농제도 개편, 끼워팔기 대응방안, 축분자원화 대책, 현실적인 브루세라 보상책 마련, 면세유 기종확대, 소값안정화 대책, 여성분과 지역분회 활성화 대책 등 10여개가 넘는 정책질의 및 건의가 쏟아져, 중식시간이 지연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다.



左 : 경남 낙농육우인을 대표하여 황민석 경남도지회 사무국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右 : 황재수 경주시낙우협회의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12월 11일(화) 경주 호텔현대에서 개최된 경북 지역 토론회에서는 경주, 경산, 영천, 포항, 김천을 비롯한 경북지역 낙우회장과 시청 및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뤄 마지막 낙농인 대토론회 행사일정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초청강연에 나선 이재용 축산물등급판정소장(전농림부축산경영과장)은 개방화, 환경문제, 시유소비 둔화 등으로 낙농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농가 모두가 현재 낙농산업의 위치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협회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나갈 때만이 이 땅의 낙농을 굳건히 지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시급한 현안과제로 전국단위 제도개편, 시유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군급식 등 단체급식 제도화, 자급조사료 생산 및 젖소개량을 통한 생산성 확대,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을 비롯한 지속적인 목장환경 개선 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낙농육우 현안토론에서는 사료값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 전국단위 제도개편 조속 해결, 우유 끼워팔기 근절대책 마련,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에 대한 대선후보 농정공약 채택활동 중점 전개, 학교우유 급식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

책 마련, 주요 일간지 우유홍보 광고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협회에서는 금번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에서 전국 낙농육우인으로부터 수렴한 정책 건의에 대해서는 향후 이사회 논의 등을 통해 협회 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경북 지역 토론회 행사 전경